◇기 고◇

보건(HEALTH)에 대하여

후지카 대원전기(주) 구로공장 총무과장 **박 성 원**

산업혁명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고 면역학과 보건학의 이론 및 기술이 건강관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화학요법과 항생제가 개발, 급격한 인구증가, 복잡한 사회구조 등과 함께 의·식·주의 해결만으로는 인간답게 산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보건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어원을 보면 "건강을 돌보아 지켜나감"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 건강이란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기존의 우리가 알고있는 건강이란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신체상의 상태라고 단순하게만 해석되어져 왔다. 즉, 생리적기능이 원만하고 신체의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라고 전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분업화되고 기계문명이 고도화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적지않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에게 신체의 질병 못지않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과 같이 건강이란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윤리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면까지 첨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그 사회 환경에 의한 법규가 있으며 그 법규에 의해 적절한 규정을 다하자면 한편으로는 사회의 주최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변형개선시켜야 할 존재이며 각자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윤리적 건강은 사회전체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해독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사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행동에 옮길 줄 알아야 하며 그리하여 항상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도 보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또한 허약하지 않은 신체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W.H.O에서 정한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보건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된 것도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1900년에서 1910년까지의 기간중에 당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64세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병률은 증가되기만 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 한국인 평균수명이 68세로 연장된 결과는 과거사람들과는 달리 현대인들의 건강수준은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건진료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무결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각자의 관리노력 과정이라 정할 수 있을 것이다.